

순천 '선제적 보육 안심망'...전국 표준 모델 '우뚛'

영아안심반 전국 확대 적용
보조교사·필요경비 등 지원
거점어린이집 2개소 추가도



순천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순천 오전그린광장에서 가족들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 정책을 펼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 도입했던 '순천형 영아안심반' 사업이 올해 정부의 '0세반 비율 개선 사업'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시의 보육 안심망 구축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순천형 영아안심반은 0세반 기준 보육교사 1명당 돌봄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인 3명에서 2명으로 낮춘 제도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세밀한 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관내 144개소 어린이집의 346개 반이 지정돼 있으며, 시는 연간 24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시비 1억9천 200만원을 확보해 현원 20인 이하 소규모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20명을 추가 배치한다.
해당 시설에는 개소당 월 120만원씩 8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총 316명의 보조교사가 담임교사 휴게 시간 보장 등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투입되며, 아울러 3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 500여명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밀착 지원을 위해 관내 127개소에 개소당 120만원씩 총 1억4천40

(만원)의 소규모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한 원아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농촌 지역 3개소(낙안·승주·별량 영현)에는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100% 보장하고, 공립·법인 어린이집 21개소에는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해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시는 연간 6천명의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총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등 1인당 20만원의 필요경비를 상·하반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4-5세) 명목으로 지원하는 월 7만원과는 별개로 순천시가 추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 밖에도 기존 '24시간 안심 어린이집'과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전남형 거점어린이집 2개소(셋별·해다미)를 추가 확충해 촘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순천시 관계자는 "보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사 처우 개선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비용 걱정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일류 보육 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보성군, 청년 취·창업 지원 '드림업 프로젝트' 가동

고향사랑기금 6천만원 투입
18-49세 맞춤형 3단계 운영

보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 6천만원을 활용해 '2026년 보성 청년 드림업(DREAMUP)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8-49세 청년으로, 자격 시험 응시부터 취·창업 준비, 근속 정착에 이르기까지 총 3단계 맞춤형 체계로 운영된다.
항목별로 어학·한국사·국가기술자격증 등 '역량 강화 지원금'을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면접 교통비, 교재비, 창업 홍보물 제작 등 '취·창업 활동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은 정착유도를 위한 '취업 성공 지원금'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12월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기금이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자질 없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화순군, 로컬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오는 12월까지 9천만원 투입

화순군은 지역 로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에 본격 나선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도 주관 '2026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총사업비 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로컬기업 온라인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지원 내용은 브랜드 스토리 멘토링, 상세 페이지 및 홍보 영상 제작, 클라우드 판팅 및

점 마케팅, 온·오프라인 디지털 실무 교육, 전문가 1대1 컨설팅 등으로, 군은 이달 중 참여 기업 모집에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발굴된 유망 기업의 홍보 콘텐츠를 지역 소싱몰인 '화순팍'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유통 마진 절감과 수익 증대가 지역 내 유휴 수매와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로컬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

장흥군은 8일 "지난달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지원법에 맞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

담팀이 참여해 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복지 자원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병행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관산 정의원과 보건소

협력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장흥우리병원을 전담형 재택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는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변화"라며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4월 한달간 특별 공연과 작가 초청 강연, 맞춤형 체험 강좌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한 입체낭독극. <장성군 제공>

"4월에는 온 가족이 독서를 즐기세요"

장성군립중앙도서관 주간 행사
샌드아트·송은주 작가 초청 등

장성군이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지역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면 가동한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립중앙도서관은 이달 한달간 특별 공연과 작가 초청 강연, 맞춤

형 체험 강좌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 주간 행사를 본격 운영한다.
우선 오는 11일에는 빛과 모래를 활용한 '빛과 모래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샌드아트 공연이 열린다.
이어 21일에는 '나이 오십에 청소년동자'의 저자 송은주 작가를 초청해 중년의 불안, 경력 단절, 사교육 등을 주제로 독자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성인을 위한 실습형 강좌도 마련됐다. 19일 가족 쿠키 만들기 클래스를 비롯해 지름 35cm 종이꽃을 활용한 성인 대상 무드등 제작 강좌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그림책 아트 프린팅 전시와 대출 정지 회원의 연체 기록을 면제해 주는 '도서연체 지우개'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온 가족이 책을 친숙하게 느끼고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 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민·관 협력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사단법인 큰산사람들 MOU

구례군은 자살 예방을 지역사회 최우선 공동 과제로 삼고 민·관 협력을 통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보건료원에서 걷기 문화 프로그램인 '수요일엔 걷수다'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큰산사람들과 자살 예방 생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해당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생명지킴이 서포터즈'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연계하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

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구례군보건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발굴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 상담과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는 등 서포터즈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 지표를 개선하고 유기적인 예방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공공 보건료기관과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한 전남 최초의 주민 참여형 자살 예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민이 함께 소통하며 만드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담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담양군은 8일 "관내 사업장을 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분산돼 있을 경우에는 각각 나누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정 지원을 강화해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밖에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군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현기 재무과장은 "관내 법인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